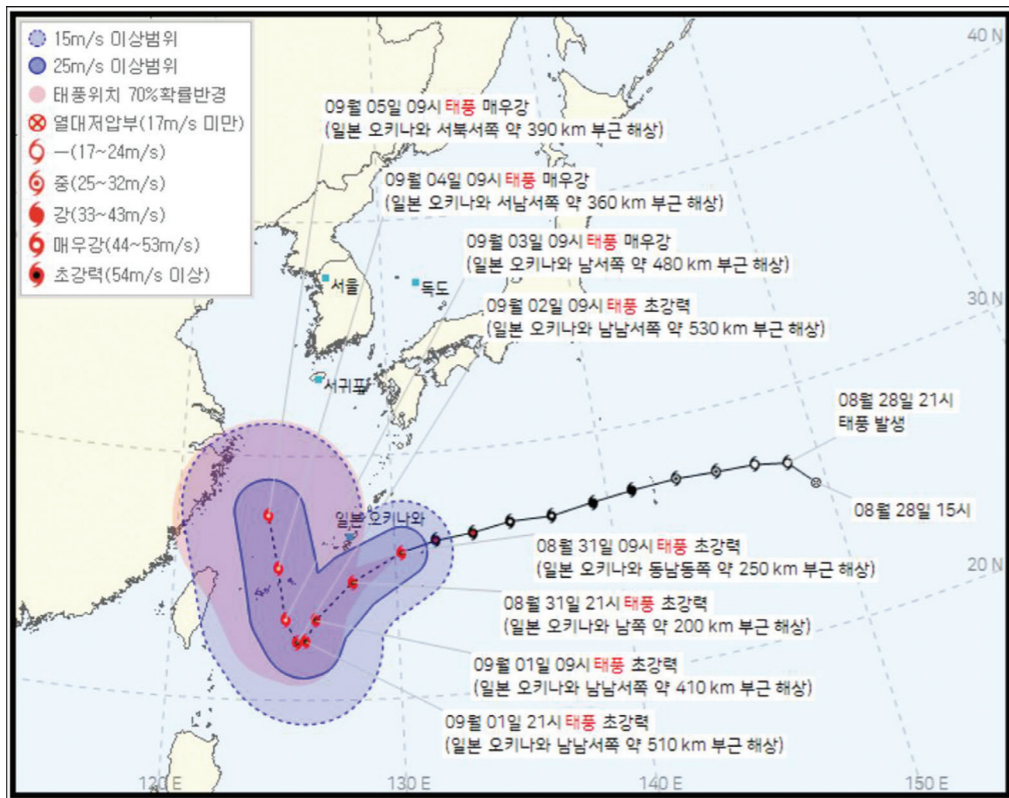


초강력 태풍 ‘힌남노’ 북상...한반도 직접 영향 가능성 주시



31일 오전 10시 기준 제 11호 태풍 힌남노의 이동경로. (사진 =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제 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는 8월 31일 오전 10시 기준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해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해상에서 서남서진 중이다. 힌남노는 9월 3일 방향을 틀어 북진할 것으로

5일 제주 먼바다, 풍랑·너울 등 영향 예상
 초강력→매우강, 강한 상태 유지하며 북상
 한반도 직접 영향권도 염두에 두고 관측 중

로 관측되는 가운데, 5일에는 제주 남쪽 먼바다 부근에 직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월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의 흐름에 따른 간접적인 기압계의 영향은 이미 9월 2일 제주도와 남해안에 예측된 강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태풍센터에 따르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시기는 오는 5일부터로 관측되는데, 이때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과 너울 등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힌남노의 경로에 따르면, 5일 예상 위치는 북위 27.5도, 강풍반경은 430km이다. 1도에 100km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태풍의 반경은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 부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북위 33~34도이다.

힌남노는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250km에서

부근 해상에서 시속 27km로 서남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15hPa, 강풍반경은 240km이다. 중심최대풍속은 초속 55m로 ‘초강력’ 단계의 태풍으로 발전했다.

‘초강력’ 태풍은 최대풍속이 초속 54m 이상으로, 이는 건물이 붕괴되는 정도의 강도를 지닌다. 태풍 ‘매미’(2003년), ‘하이센’(2020년) 등이 초강력 태풍으로 분류된다.

힌남노와 같은 초강력 태풍은 북서태평양 발생 태풍의 평년값을 비교했을 때 발생률이 7% 정도다. 여름보다는 가을에 ‘초강력’ 태풍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힌남노의 강도는 3일에 북상하기 전까지 정체하면서 다소 약화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그럼에도 ‘매우강’의 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상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경호 국가태풍센터 기상사무관은 “힌남노

가 북상하기 전 정체하면서 약간의 강도 저하를 겪을 것으로 보이나 큰 약화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상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일 예측된 중심기압은 930hPa로 여전히 ‘매우강’ 단계의 태풍이다.

이에 따라 만약 힌남노가 5일 이후 우리나라로 향하게 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앞으로 진로는 힌남노가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얼마나 정체할 것인지, 정체하면서 얼마나 주변 기압계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으로는 힌남노가 중국 동단으로 갈 가능성, 우리나라 쪽으로 갈 가능성, 대만해협 쪽으로 갈 가능성, 규슈 쪽으로 갈 가능성 등이 모두 열려있다.

이 기상사무관은 “힌남노가 북상하게 되면, 북상을 이끌만한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압골의 강도나 이동 속도 등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현재로는 우리나라 내륙 상륙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한동훈 “론스타 사건, 피같은 세금 한푼도 유출되지 않아야...판정 후속조치 검토”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9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CSID)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취소 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에 승인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서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했지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뤄볼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했고, 2006년부터 지분을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흥국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을 벌였다.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지만 정부가 주가조작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되기도 했다.

결국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지분 매각 이후 론스타는 한국 정부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책임을 묻고 나섰다.

뉴시스

“순천시에 전입 오면 꿈꾸는 정원을 드립니다”

올해 인구 소멸 위기 대응 위해 새롭게 인구정책으로 추진

순천시는 올해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새롭게 인구정책으로 추진한 ‘순천드림정원 조성사업’이 귀향·귀촌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순천드림정원’사업은 정원도시 특성을 살린 전원주택의 정원 조성 지원 사업으로, 은퇴자 및 귀향·귀촌인이 꿈꾸는 내 집 앞 정원을 조성하는 출향인의 전입 정착을 유도하는 시책이다.

지난 5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남제동, 주암면 등 3개소를 선정했다. 정원별 전담 코디를 지정해 정원 컨설팅 단계부터 공동체 구성 등 모든 과정을 은퇴 전입자와 함

게 진행했다.

특히 정원 조성에 참여할 인력을 지역주민으로 활용해 마을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도왔다. 정원코디와 지역주민이 함께 은퇴 전입자와 정원을 조성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어 드림정원이 마을의 소통 장소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 은퇴 전입자는 드림정원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정원 관광 콘텐츠로 누릴 수 있도록 정원을 순천시 개방정원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드림정원 조성으로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마을 주민과의 교류도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며 “은퇴전입자와 정원코디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후 정원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사업추진 과정과 결과를 담은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해 SNS뿐만 아니라 타지역 주요 기업체, 향우회 등 출향인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등 전입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건강한 밥상의 시작

청정엘로우시티 장성 먹거리